

News

고승범 “이번 DSR규제에 전세대출 반영 안해”

동아일보

고승범 금융위원장,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겠다" 언급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다만 고 위원장은 금리나 캡투자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동 부분에 대해 잘 관리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7% 후반까지 용인하겠다 언급

‘금리상한형 주담대’ 3개월간 가입 31건…지지부진 왜?

데일리안

금융당국 주도 아래 은행권에서 2년만에 재출시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 3개월 지났지만 외면 받는 중… 가입 건수는 31건, 잔액 53억 5,500만원 기록
통행 여부는 향후 금리 상승 속도에 달려… 4대 은행 이달 변동형 주담대 금리 최대 3.71%~4.29% 수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3.14%~4.95%로 상승

한은 "한계기업 장기 회생률 최대 36%…재무상태 재악화 빈번"

연합인포맥스

한국은행, 한계기업이 장기적으로 회생할 확률이 기존 인식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 한계기업은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의미
신규한계기업의 63.6%는 10년 내 한 차례 이상 정상화 상태로 돌아오기는 하나, 10년 후에도 정상상태로 존속하는 경우는 27.7%에 그쳐…

정은보 "경남은행 수상한 거래, 검사할 계획"

뉴시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경남은행의 자체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사실조사와 함께 검사할 계획 언급
경남은행에서 지점장이 개입된 수상한 돈의 흐름 포탁… 기업에 내준 대출금 일부가 지점장 가족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로 흘러간 일 관련 징계가 솜방망이었다는 논란

카카오페이, 거품 논란 딛고 공모가 최상단 9만원 확정

매일경제

카카오페이, 21일 오후 2시 기준 수요예측 경쟁률 1,400대 1 안팎. 공모가는 희망범위 상단인 9만원으로 책정될 것이 유력
의무 확약 신청한 곳도 70% 훌쩍 넘어… 올해 마지막 조 단위 공모 기업이라는 점이 동사 통행의 배경으로 분석

종신(終身) 이름값 못하는 '종신보험' 어떡해… "2년 내 절반 깼다"

이코노미스트

종신보험 가입자 절반가량은 2년 이내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의 무리한 영업행동 속 보험소비자들이 피해 입는 중이라는 지적
주요 생보사별 25회차 종신보험 유지율은 삼성생명이 50.8%, 한화생명이 56%, 교보생명 58.7%로 업계 평균 58.6%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증권업계, CFD 수수료 전쟁 시작되나… 삼성 이어 메리츠도 인하 행렬

머니S

삼성증권 지난달 30일 CFD 수수료율 업계 최저 수준인 0.07%로 인하… 고액자산가 고객 선점 및 신규고객 선점을 위한 목적
대형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동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이번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한투연, 外人 TRS 탈세 혐의 증권사 고발…증권사 "과세 근거 모호"

연합인포맥스

한투연, 외국인 대상 TRS 거래 관련 탈세 혐의 증권사 고발… 그간 증권사는 외국인 TRS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부족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과세처분 받은 증권사들은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의 과세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 결과 기다리는 상황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